

남도 풍경 속 ‘미륵과 장소’의 서사 되새기다

전남미술관서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뮤지엄 이음’ 선정 콘텐츠…삶 흔적 조망

전시 10월 5일까지…연계 프로 운영 등도

광주에서는 국운미술관에서 11일 개막돼 9월 13일까지 ‘무등향유’(無等享有)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 선정 콘텐츠의 하나다. 여기서 접한 관람객들은 ‘뮤지엄 이음’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뮤지엄 이음’ 선정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가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마련된다.

20일 전남미술관에 따르면 아트선재센터(예술감독 김선정)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뮤지엄 이음’에 선정돼 기획한 시각연구밴드 이끼바위쿠르르(고결 김중원 조지은) 그룹의 특별전 ‘거꾸로 사는 돌’이 20일 개막. 10월 5일까지 47일간 열린다. 출품작은 21점.

전남미술관이 해안과 농촌, 오랜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남도의 풍경 속에서 미륵과 장소의 서사를 조명

하는데 주력할 이번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전시 공간과 운영을 지원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전시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뮤지엄 이음’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시와 관광·지역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수 전시의 지역 순회 개최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거꾸로 사는 돌’은 전국 각지에 남겨진 미륵과 그 주변 풍경을 통해 인간 중심의 시간과 개발의 논리 바깥에 존재하는 생태와 장소의 시간을 탐색하는 전시로,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인 미륵이 오하려 과거의 시간 속에 방치돼 있다는 역설에 주목하며, 버려진 돌과 오래된 마을, 해안과 농촌, 폐허가 된 장소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멀어진 뒤 어떻게 또 다른 풍경과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조명한다.

전시는 영상·조각·드로잉·설치 등 다양한 매체



그룹 이끼바위쿠르르 작 ‘거꾸로 사는 돌’

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손이 잘린 미륵 석상에서 비롯된 조각 ‘부처님 하이파이브’(2024), 전국의 미륵 석상을 한지와 숲으로 채집한 대형 드로잉 연작 ‘다듬기’(2024), 미륵과 풍경을 기록한 2채널 영상 및 설치 ‘거꾸로 사는 돌’(2024), 산수화 속 산의 형상을 입체로 구현한 ‘우리들의 산’(2024), 인간 이후의 세계를 상상한 단채널 영상 ‘쓰레기와 춤을’(2024)이 전시된다. 시각연구밴드 이끼바위쿠르르(고결, 조지은)는 2024년 아트선재센터 원전시를 바탕으로, 이번 순회전에서는 각 지역의 장소성과 공간 조건에 맞춰 구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주관련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온 가운데 2026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

젝트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국가관 전시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15회 독일 카셀도큐멘타에 참여작가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아트선재센터 김선정 예술감독은 “버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던 미륵의 존재를 통해, 인간 중심의 시간관에서 벗어나 지역의 풍경과 생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과 서천,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자연·문화 환경 속에서 전시가 새롭게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관람객들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미술관 이지호 관장은 “전남 곳곳에는 오랜 시간 마을과 함께해 온 미륵과 다양한 삶의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관람객들

이 평소 익숙하게 지나쳤던 장소와 풍경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미술관에 이어 열릴 두 번째 전시는 서천문화예술창작공간(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갯벌과 철새 도래지, 옛 미곡창고 건물이 지닌 장소의 시간성과 전시를 연결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20일 전남미술관 연대 이어 10월 20일 서천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각 1회씩 운영한다. 토크에서는 작가가 전국을 이동하며 진행한 리서치 과정과 작업 세계를 관람객과 나눈다. 또한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전남광주에서는 해안·농촌·미륵 관련 장소를 잇는 버려진 미륵을 찾아다니는 문화·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서천에서는 장항선 철길 및 항구, 송림해변, 서천갯벌 등 지역 관광 자원과 전시가 이야기하는 ‘남겨진 장소와 시간’을 연결해 함께 산책하며 풍경을 재조명하는 문화 관광을 유도한다.

한편 ‘뮤지엄 이음’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88개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들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전을 개최하며, 이 가운데 50개관은 전시 장소를 거점으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전시 관람을 지역 체류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해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통 수묵 고유의 특성 살린 ‘추상의 세계’

허달용 개인전 ‘공명-마주보기’ 주제

26일부터 서울 인사동 G&J갤러리서

“지나온 삶 되돌아보는 명상의 과정”

전통 수묵(水墨)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온 허달용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공명-마주보기’(共鳴, Resonance-Facing Each Other)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타이틀인 ‘공명-마주보기’는 수묵의 깊은 흑백과 여백으로 빚어낸 영혼의 울림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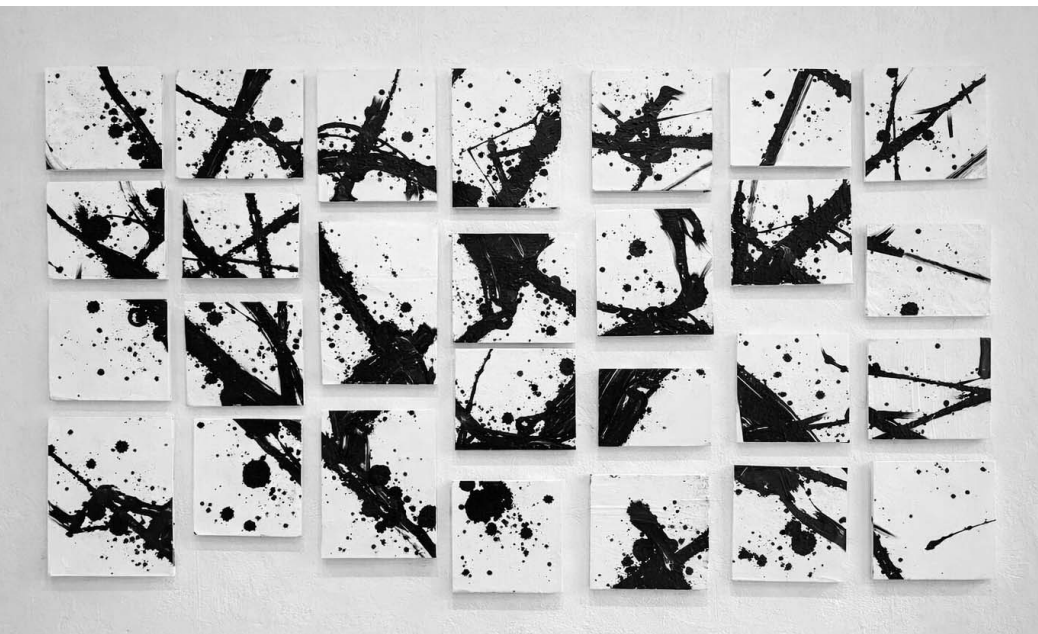
시대를 향한 외침이자, 먹의 거친 질감과 수묵의 깊이, 그리고 비워냄의 미학을 구현해가고 있는 작가의 회화적 품을 대면할 수 있을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현대적 재료로 모방할 수 없는 전통 수묵 고유의 특성에 집중하고 있는 작가적 태도와 실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깊고 짙은 먹빛의 농담, 화면 위를 거침없이 가르며 먹의 번짐과 파편적인 흔적들은 날 선 긴장감과 깊은 고요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아울러 작가는 화면 속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전시가 ‘민중미술에서 추상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중 ‘가짜지구-소녀 얼굴’ 작품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작품 속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지만, 화면 전체는 이미 상당 부분 추상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먹이 번지고 스며든 배경, 형태가 해체되는 후드의 공간, 비어 있는 검은 면, 거칠게 남겨진 붓의 흔적 등의 요소들로 인해 인물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을 공간으로 확장한다.

화면 하단의 넓고 검은 여백은 단순한 배경이 아



‘공명-마주보기’

니라 감정을 머금은 공간으로, 관람객은 얼굴보다 오히려 이 점묵의 공간에서 오래 머물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현은 추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풀이다. 이전 작업에서 보였던 구체적인 모터브를 과감히 지워내고 구축한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근원적인 ‘공허함’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 물 위의 그림자는 자신을 비추는 ‘창’(Window)이 된다. 최근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시각적 메타포는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친 ‘물 위의 그림자’와 ‘투영’의 이미지로, 작품 중심부에 자리한 사각형의 구조는 단순한 조형적 틀을 넘어 내부와 외부를 매개하는 ‘창’이자, 관객이 스스로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작용한다.

그동안 작가의 작품에서 사람의 얼굴은 공명을 위한 얼굴이자 재현을 넘어 감응이자, 언제나 개인을 넘어 시대를 담는 매개였다. 이번 작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지만 이전보다 감정의 밀도를 훨씬

절제하고 있다. 분노보다 침묵이 깊고, 고발보다 응시가 강하며, 서사보다 공명이 앞선다. 이는 오랜 시간 수묵을 다루면서 얻어온 절제라고 볼 수 있다.

전통 회화의 정신성을 지키면서도 이를 현대적 추상 형식으로 과감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작가의 이번 전시는, 작품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대신, 그저 끝까지 마주보게 만든다. 공명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화면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허달용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에게 작업은 지나온 삶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명상의 과정이다. 화폭 위에 깊은 먹의 울림이 관객들에게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스스로의 내면과 온전히 마주하는 ‘공명’의 순간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미틸라 회화’의 독창적 예술세계 첫 선

남아시아 작품전…내년 2월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실2

인도·네팔 등 61건 108점 선보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20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미틸라 회화, 마음과 삶을 잇는 그림’ 전시를 개막했다.

내년 2월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남아시아 지역의 ‘미틸라 회화’(Mithila Painting)를 선사한다. ‘미틸라 회화’는 고대 미틸라 왕국에서 전승된 것으로, 여성들이 집 흙담과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축복과 안녕을 기원했던 전통 예술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남아시아 미술 중 일부분으로만 소개돼 왔으며, 미틸라 문화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인도 북부 마두바니(Madhubani) 군과 네팔 남부 테라이(Terai)가 해당된다.

신분과 성별을 넘어선 인도·네팔의 공동체 예술 작품 61건 108점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첫 번째 ‘함

께 잇는 전통’에서는 오랜 세월 가정의례로 지속되던 회화가 오늘날 공동체 공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예품으로 확장 및 계승돼 온 모습을 선보인다. 두 번째 ‘상징에 담긴 세계’는 힌두 신화 속 인물과 자연 문양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회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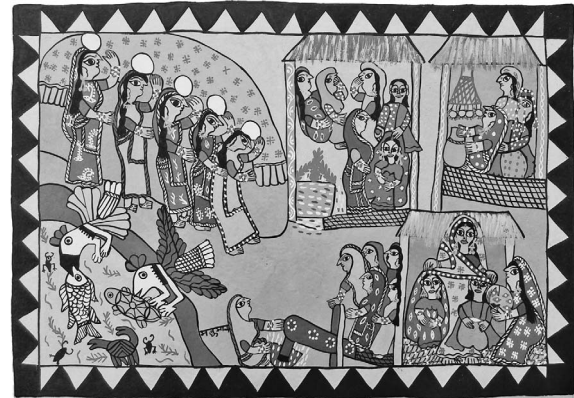
이어 세 번째 ‘집에 깃든 축복’에서는 전통적으로 신혼 방에 길상의 의미로 그리는 꼬바르(Kohbar) 회화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을 담은 메시지’는 현대작품으로 일상생활과 여성 인권을 표현한 그림이 소개된다. 또 관람객이 AI와 함께 그림을 그려 완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으로 그려보는 미틸라 회화’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미틸라 회화’의 시작은 여성 중심으로 전승되던 문화였지만 오늘날에는 공방을 통해 남성들도 함께 배우며, 성별과 카스트 신분의 구별 없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바르니(Bharni), 까즈니(Kachni), 고바르(Govar), 고다나(Godna), 탄뜨리(Tantrik) 등 신분 계층과 회화 양식에 따라 구별되던 특유의 다채로운 기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미틸라 회화’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지역공동체의 삶 속에서 오늘날 살아있는 문화로 지속돼 온 ‘미틸라 회화’의 따뜻한 온기와 예술성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미틸라 회화 작품